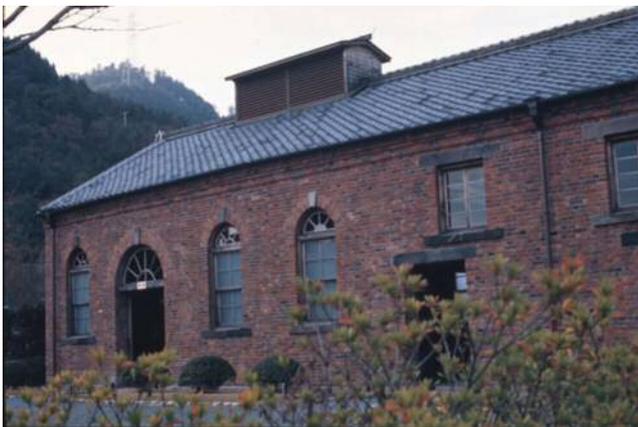


#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일본 최초의 서양식 유리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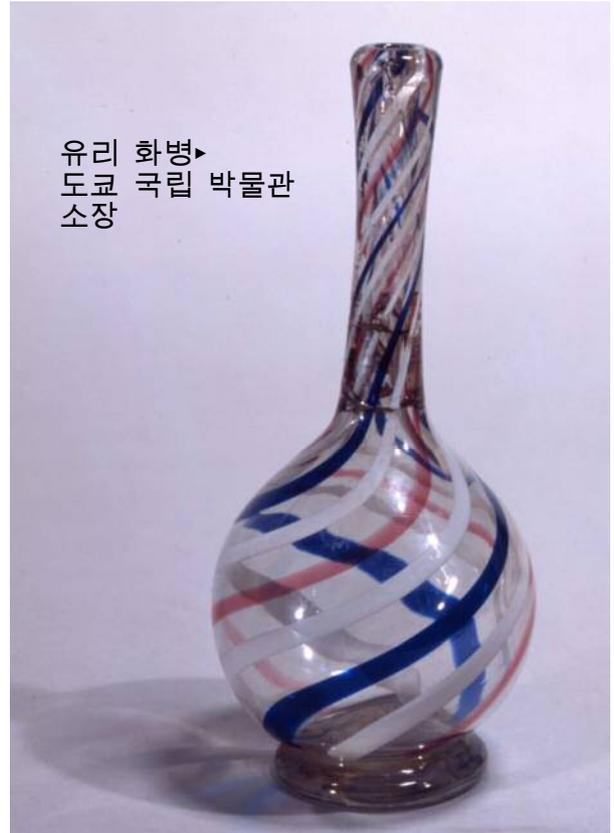
근대 유리 공업의 시작

1873년, 니와 마사쓰네는 도카이지방  
경내의 메구로가와 강변(도쿄도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4-11)에 일본 최초의 서양식  
유리 공장인 고교샤를 설립했습니다.  
고교샤는 영국인 엔지니어 토마스 월턴을  
고용하여, 영국의 기계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경 30~50cm,  
길이 1.2~1.8m 정도의 크기로 성형한 뜨거운  
유리에 절단선을 넣어 평평하게 펴는  
방법으로 판유리 제작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관영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소재 박물관  
메이지무라로 이축된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  
건물



유리 화병▶  
도쿄 국립 박물관  
소장

메이지 정부는 산업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1876년에 고교샤를 매입하여, 관영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로 만들었습니다. 서양식 건물에  
사용하는 판유리나 선박에 다는 항해등용  
유리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유리  
공장에서 기술을 익힌 사가번(지금의 사가현  
사가시 주변)의 후지야마 다네히로가  
항해등용 유리 제조에 성공하여, 1879년에는  
영국인 엔지니어 제임스 스피드 등의 지도로  
유리로 된 양식기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니시무라 가쓰조(1836-1907)



▲오시게 주자에몬(1857-1891)  
시나가와 역사관 소장



▲오시게 주자에몬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유리에 밝은 빨강색을 입혀 벚꽃 무늬로 장식한 화병  
시나가와 역사관 소장(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

### 민영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

유리 그릇을 제조하긴 했으나, 일본 국내 수요는 적어서 매출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판유리 제조에 실패해 경영 부진에 빠진 탓에 1884년에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85년 5월에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는 니시무라 가쓰조 등에게 매각되어 민영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로서 재출발했습니다. 내화 벽돌 국산화 등 이미 제조업에서 성과를 거둔 니시무라는 경영 쇄신과 더불어 엔지니어를 독일에 파견해 최신 기술·설비를 도입하여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1888년에 업무 확장에 따라 민영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는 유한책임회사 시나가와 유리 회사로서 발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 최초로 맥주병을 대량 생산함과 동시에 약병, 가압 성형 유리 접시 등을 제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영 부진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1892년 11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 유리 공장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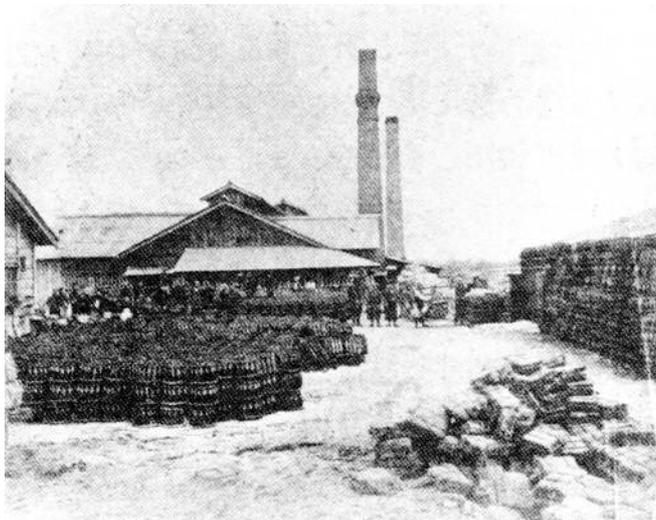
1873년에 시작되어 몇 차례나 변모하며 한 장소에서 운영된 유리 공장은 약 20년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신기술 도입과 우수 기술자 육성 등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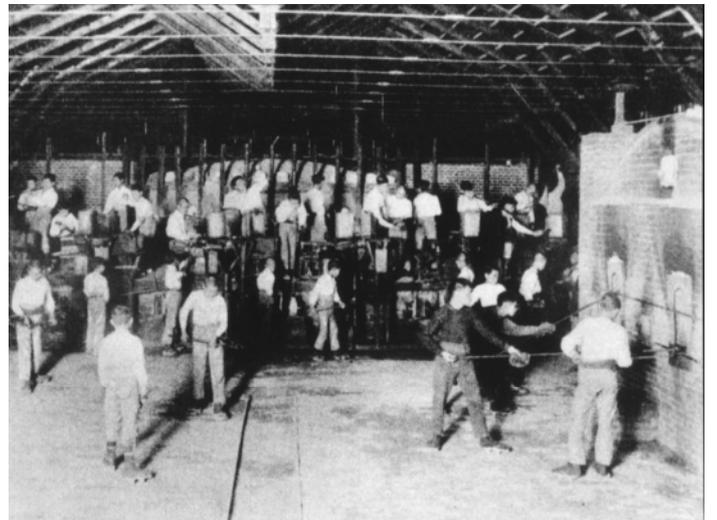
이와키 다키지로(일본 최초로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에 성공. 이와키 유리 제조소 창업자), 오시게 주자에몬(오야마샤 공동 창업자) 등 이곳에서 육성된 많은 기술자들이 독립하여 활약하고 있습니다. 시나가와에서는 완성을 보지 못한 판유리 역시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에서 배운 시마다 마고이치(시마다 유리 제조소 창업자)에 의해 1902년에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시나가와 유리 제조소 건물 일부는 1968년에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소재 박물관 메이지무라로 이축되어, 메이지 시대의 귀중한 건조물로서 가마터 등에서 출토된

맥주병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맥주병 출하



▲공장에서의 작업 풍경